

아산뉴스

발행인: 아산시장 강희복/편집: 공보체 윤과/우편번호: 336-701/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온천동 1626)/전화: (041) 540-2221/팩스: (041) 540-2162/http://www.asan.go.kr

2005년 5월 25일 (수요일) 제137호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고장, 서로 믿고 함께하는 도시



아산 맑은 쌀

대한민국 경제, 아산이 이끌어 갑니다

2005년 1/4분기 무역흑자 전국 48.7% 충남 83.4%

2005년도 1/4분기의 수출입 동향을 충청남도가 발표하면서 20만 아산시민들이 커다란 자부심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를 아산이 이끌어 간다는 자신감으로 매우 고무돼 있다.

충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1/4분기 충남이 총수출 75억불, 수입 36억불로 39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면서 대한민국 무역흑자의 58.4%를 달성,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이중 83.4%에 해당하는 32억불 무역흑자를 아산이 일궈내면서 대한민국의 무역흑자를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가 됐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20만 아산시민들은 충남이 무역흑자 전국 1위이고 충남의 1위가 아산이면 결국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무역흑자 수위는 아산이 아니냐면서 그동안 아산시가 중부권 최대의 중핵도시라는 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다고 기쁨을 감추

지 못했다.

또한 우량기업들의 유치와 기업들의 활성화로 무역흑자를 이뤄 내면서 이는 곧 튼튼한

나타냈다.

한편 충청남도 도내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시·군은 아산시에 이어 천안

시(13억불), 서천군(1.7백만불), 금산군(1.4백만불) 등 9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2005 1/4분기 시·군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세수증대가 지역발전의 밑거름 기업체유치가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

1995년 은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아산시의 재정규모는 예산 368%, 지방세입면에서 342%가 증가 했다.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1995년도가 1,357억원, 2005

년 5001억원이며 지방세는 229억원(1995년) 대 783억원(2005년)이다. 지방세가 10년만에 342%증가 한데는 아산에 위치해 활성화된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실적과 무관하지 않다.

국도노선과 인접하여 풍물유적의 절감과, 공단조성으로 입주기업의 편의도모등 아산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어 실제로 450개에 불과하던 1995년도의 사업체수는 2005년 929개로 대폭 증가 했고 이는 충청남도내 기업유치 실적 1순위에 해당된다.(원산도로 참조)

새로운 기업의 유치로 가장 눈에 띠는 파급효과는 세수증대와 일자리창출을 들수 있고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과 연계 된다. 이러한 면에서 아산은 지역발전을 위한 튼튼한 재정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는 2005년도 아산에 유치된 기업들이 납부 해야 할 법인세를 주민세가 400억원으로 수납되고 있어 시

방세 수입의 57%를 상회 하고 있고 이는 불과 2년전 267억원의 법인세와 주민세에 비하면 2.8배에 달하고 있는데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지방세수의 증대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하여 시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교육문화혜택,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아산의 발전을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편지정보집적화 단지조성등 많은 기업들이 입지가 예상되고 있어 세수는 계속하여 늘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산 만평





2 2005년 5월 25일 (수요일)

시정 종합

이산뉴스

아산시 내년 국비확보 총력전

중앙부처방문 104개 사업에 3,268억원 사업비 지원요청

아산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희복 아산시장과 건설교통국장 등 시청간부진 7명은 19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시의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총 104개 사업에 3,268억원으로 시가 선정한 주요핵심사업과 국비확보목표액은 ▲국도21호확포장 300억원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건설 100억원 ▲국도34호(둔포·성환)확포장 100억원 ▲국도45호(온양·음봉)확포장 180억원 ▲국도 대체우회도로(4개구간) 600억원 ▲수도권전철도고온천역까지연장 545억원 ▲국가하천환경경비 104억원 ▲둔포전 자정보조작화단지진입도로개설 200억원 ▲탕정T/C진입도로개설 300억원 ▲국가지원지방도(70호)확포장 300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탕정T/C진입도로개설사업 지원요청과 관련해서는 예산사업이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무역흑자증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삼성S-LCD, 삼성코닝경밀유리 등 세계최첨단의 기업체와 탕정T/C 등이 연계된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는 논리를 펴, 관계부처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받아냈다.

시장이 사업부서 해설부본부를 이끌고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것은 급격한 시세환경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희복시장은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예산편성방식이 부처별로 총액배분(Top-down 방식)에

따라 사전에 관련 부처를 집중 방문해 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이

달 말까지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국비요구사업들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생활관에서 명화 한편 감상 하실래요?

대형스크린과 영사기 갖추고 명화상영,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일익담당

시가 지난해부터 올립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영사기와 음향기기 대형스크린을 갖추는 등 착실향 준비로 5월부터는 아름다운 명화 상영이 가능하여 지역청소년과 시민들이 견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시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나날이 증가해 가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마땅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종합공간이나 예술문화회관이 건립 되기 전에 활용하여 청소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35mm의

영사기를 설치하고 10.0m×6.0m의 대형 스크린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영화필름 대여와 DVD구입을 위해 영화시범문과 우수 영화상영 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등 만반의 준비로 영화를 상영하게 됐다.

5월중에 8일 미파도, 14, 15일 유희왕을 상영 많은 시민들이 국민생활관을 찾아 영화관람을 즐기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6월에도 5일과 6일, 18일과 19일 영화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민생활관 관계자는 “토요일과 일요일 가족영화, 어린이 영화 상영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좋은 영화를 가지고 시민들과의 만남을 계획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경제 도시, 아산

세계화 속에 국가 간의 이익이 더욱 침에하게 대립되고 경쟁 양극 역시 다양화되어 국제 사회에는 승률을 높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니 한 나라에 대한 다른 한 나라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특히 영향력을 기진 국가일 경우 그 과정 효과는 정말로 대단해졌다. 달러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국내 경제 사정은 그대로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악소국일 수록 그 파고는 더욱 높아진다.

노란 꿈틀 시각의 기쁨 없이 소급반 출마노 비산유국의 경제는 비단 앞의 촛불처럼 흘러리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자립하고 싶어도 이제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나 보니 국제 사회 속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자원이 빈약한 것은 물론 석유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제 경제 사회의 높은 과도를 헤쳐 나가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 소득 1만 2천불이라는 자랑스러운 성장을 이루하였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근대화의 길이 않은 세월을 통하여 오늘의 경제적 부를 일구어낸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미국에서 불어온 국제 경기의 침체 여파는 우리의 시장 경제 역시 수출하게 만들었고 민선 침체 속에서 허덕이는 일본 경제를 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얼어붙었다. 하루 빨리 이러한 경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역시 자기 혼자의 마음만으로는 힘든 것이다.

하지만 꿈寐없이 노력하고 뛰어야한다. 세계를 향한 아름다운 귀를 기울이고 국내 경기를 부양하며 민관이 혼연일체로 함께 해쳐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서광처럼 달아올 것이다.

200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와 환율 하락은 우리의 수출 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2004년 3/4분기부터 수출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드디어 2004년 12월에는 수출이 하자리수의 증가에 머무는 듯 화려한 드라마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 봄에 들려오는 반

기운 소식은 다시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4분기 수출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1.6%나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대기업의 역할이 어려워 물량적으로 크다. 하지만 중소기

업의 대약진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중소기업은 작년에 비하여 무려 74.0%나 증가한 것이다. 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욱 뜻깊은 일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5년 1/4분기 충청남도의 총 수출은 7,540백만불, 우리 3,688백만불, 무역수지는 3,863백만불로 나타나 전국 무역 흑자 6,610백만불 중 58.4%를 차지하여 충남도가 우리나라 무역 흑자 기여에 1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뜻깊은 것은 우리 아산시 난박 무역 흑자 3,220백만불로 전국 무역 흑자 1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인구 20만의 조그만 도시가 한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리 아산시는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 겪친 악재에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 전국 1위 충남 1위를 차지함으로써 타 도시의 귀감이 됨은 물론 우리 경제의 희망으로 펴우라 서해안 중부권 중핵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도 어깨에 짊어지고 역주하는 경제도시 아산. 너는 정말 대단 하구나.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을!





아산뉴스

의회소식 / 시정종합

2005년 5월 25일 (수요일) 3

제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96회 아산시의회(의장 이한숙)임시회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무위원회 소관인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조례안 접수현황 및 개정이유)

1. 아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5. 7)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정송의 다변화와 지방자치시대에 특수한 고유사무의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고문변호사를 확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5조)

2.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5. 7)

인구 20만 규모의 시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체계를 구축하여 점증적인 개발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현재대비 57명 증원된 1,020명으로 증원시키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경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3.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 5. 7)

인구 20만 규모의 시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체계를 구축하여 점증적인 개발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국 3과를 증설하고자 함. (지방자

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4.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5. 7)

현행 리·동·반의 획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리·동·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내지 6항)

5.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2005. 5.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 3. 11 공포, 2004. 6. 1 시행)에 의거 기존 아산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아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

6.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2005. 5. 18)

경당골 계곡내 오랜동안 불법 상가들이 난립하여 불법시설물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시유지인 송악면 강당리 295번지에 조립식 가건물을 건축하여 무허가 업소를 짐단 이주시시키고자 기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서 일부 해제하여 강당골 계곡을 정비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수두환자 증가에 따른 주의사항

수두를 앓은 젊이 많거나 예방접종을 박지 않은 소아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수두 특성 ◀

□ 수두 병원체 : 수두 바이러스 (Varicella zoster virus)

□ 역학적 특성

- 잠복기 : 9~21일 - 호발연령 : 5~9세

- 전염기간 : 수포발생후 1~2일전부터 수포생긴 후 5일경노까시

- 전파경로 : 환자의 기도분비물의 비말을 흡입한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의해 전파됨

□ 임상증상

- 열을 동반한 수포성 발진이 물통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신으로 퍼져 발생하 며 손바닥, 발바닥, 구강내에도 발진이 생기며, 가려움증을 동반함

- 전신불쾌감, 식욕소실,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함

□ 치료

- 가려움증에 대해 대처요법을 시행하며, 발열이 있는 경우는 해열진통제를 사용함

- 라이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사용하지 않음

□ 합병증

세균감염, 폐렴, 뇌염, 간염, 라이증후군 등

아산시 녹용 공동 대표브랜드 공모안내



<공모내용>

□ 공모방법 - 아산시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 공모기간 - 5월 10일 ~ 6월 10일

□ 우수작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60만원

우수상 2명 급속동결건조녹용

□ 우수상발표 - 6월 중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통보

* 아산시는 전국 최고의 사슴사육지로 4,07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간 사슴에 대한 연구사업으로는 잡관목조사료생산기계개발, 녹용부페방지 및 털제거기개발 등 활발한 사업에 과학 연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불계도 및 자연보호활동 실시



2005. 5. 7(토) 아산시의회(의장 이한숙)에서는 산불방지캠페인 및 자연보호활동계도를 위한 광역산 등반을 실시했다.

이번 등반에서는 몇몇 날씨 않은 날씨로 산불조심기간(2005. 2. 1 ~ 5. 15)까지 산불예방에 대한 흥보는 물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쾌적한 휴식처를 위하여 자연보호활동도 동시에 전개하여 산림에 대한 소중함을 등반객과 함께 나누고 돌아왔다.

아산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2005. 5. 6(금) 10:00 신정호 관광단지에서 제1회 국민생활체육 아산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혹성)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아산시게이트볼연합회에서 주최를 했으며 참가팀수는 25개팀 300여명이 참가하여 게이트볼 동호인의 친목도모는 물론 체력涵養 및 생활체육으로서 게이트볼에 대한 인식확립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관광행정 분야

1. 고액민족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 종사원에 대한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보다 친절한 도시 관광아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안내·홍보 책자를 연1회 이상 제작하여 국내외 관광객 및 관내 업소에 수시 배포 우리시역 관광을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객의 여행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3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고 외국어 통역 가능한 안내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 관광봉선 사항을 관광봉편신고센터(☎540-2168)에 신고하시면 신속하게 시정조치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 문화예술 활성화 및 항토문화축제 특성화

- 고객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3회 이상 국내외 유수한 문화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 항토문화 축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온양문화제 행사를 참여 중심의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3.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

- 관계전문가의 고증·자문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소중한 전통문화 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하는데 총력을 하겠습니다.

- 항토유적보호위원회를 연2회 이상 개최하여 특색있는 전래 풍습과 항토유적을 발굴 가치있는 문화유산의 계승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 우리 고장의 명승지를 찾는 고객에게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해설사 4명 이상을 상사 배치하겠습니다.





4 2005년 5월 25일 (수요일)

시정종합

이산뉴스

성웅이순신축제 45만 관객 찾아와...

전국민의 관심속에 성대한 막 내려, 국가적 축제로 발돋움



▲ 격구시연모습



▲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이순신퍼포먼스



▲ 전통거리의 체험자들...

지난 4월 26일부터 20만 시민을 열정과 기쁨, 환호성으로 들뜨게 했던 6일간의 성웅이순신축제가 이순신장군의 충효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 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전국민의 가슴에 아산을 각인하는 축제로 성대한 막을 내렸다.

45만여 관광객들이 아산에 발걸음을 하여 함께 배우고 느끼며 즐거워 했던 이번 축제를 통해 20만 아산 시민은 아산인의 자랑을 알퀴, 관심과 든든한 기쁨을 기울여 축제를 성공리 치뤄냈다는 자부심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마음이 모아져 희망찬 아산의 밝은 미래를 일구 나간다는 시민 화합의 공감대도 형성됐다.

■ 이순신장군 무과시험재연 호응커

또한 이순신장군의 생애를 축제의 주제로 하여 전

국 유일의 인물스토리 전개형 축제로 만들면서 거북선 체험프로그램과 전시관, 조선시대의 병 영체험, 승선기발, 꾼포머스 프로그램 등을 전개,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내으로서 인물축제의 성공 가능성도 찾았나보다.

이와함께 조선시대의 무과시험을 재연하는 마상무예가 곡교현 유해밭에서 펼쳐져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왔다. 말타기 활쏘기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므로서 축제를 찾았던 외국 대사관도 관심을 가지고 활쏘기를 해보는 등 축제 기간내내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특히 갈기를 휘날리며 힘차게 달려 나가는 말 위에서 마상격투를 재연 할 때에는 카메리에 담기 위해 각자에서 물려온 관광객과 사진가자들의 서터소리가 높아지 않아 우리전통에 대한 국민들의 대단한 гор상과 사랑을 표현하므로서 무과전시의는 성웅이순신축제의 중심地位

마로 키워 나갈만한 충분

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으로는 매년 겪어야 했던 교통체증과 외지 잡상인의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므로서 축제를 찾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고 축제장 주변 시민들의 생활에도 불편

함이 없도록 한점도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 주차문제 해결로 관광객 불편해소

개봉을 눈앞에 둔 북부외곽도로가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 했다면 자율방범대, 무선봉사단, 모범운전자회등 시민봉사단체의 석구적인 참여가 축제의 성공을 끌어올렸고 일전여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도 축제를 한층 빛나게 해 이제 축제는 함께 만들고 함께 기뻐하는 20만 아산 시민 모두의 것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사람과 땀, 열정과 기쁨으로 만들어진 20만시민의 축제, 다음해 그리고 또 다음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나갈 성웅이순신축제의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제44회 성웅이순신축제는 대장정의 막속으로 발길을 들어 놓았다.



▲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의 즐거운 비명...

남산, 아산시민의 휴식과 건강공원으로

도시 중심부의 푸른 숲 남산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의 모습을 골고루 갖추고 한층더 시민 겸으로 가까이 다가온다.

시는 남산공원이 10개년 짧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획의 실시 이전에 우선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읍수대 정비와 등산로변에 조경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태양광 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남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락한 쉼터로 가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8월까지 ▲읍수대 상류부 마사토 포장(3개소), ▲비기암 정자 시설(2개소), ▲태양광 가로등 설치(5개소), ▲읍수대 신규개발(1개소) ▲등산로

이정표 정비(10개소) ▲신규등산로 개설(3개로선)을 하는등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전개, 원료한다.

이미 시는 남산공원내의 총열탕주변 2,000여㎡이 면적이 사생화동상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수 있도록하고 낮은 인조목을 철거후 목재의자 20개소를 신규설치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2007년도 광공근로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초가정자 지붕을 정비했으며 체육시설(역기 1대)을 설치하고 남산터널입구의 등산로변에는 등산객 안전과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목재난간을 설치 노야자는 물론 야간 등산에서도 안전

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여 남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휴식과 웨딩 공간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정비한바 있다.

또한 자연경관을 해치는 철조망도 철거하고 남산터널 상단부에 현수목을 이용 단풍나무 숲길을 보완하는 등 남산이 지니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면서 시민들에게 숲의 혜택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신정호총개발 계획과 연계 도심지내의 푸른 숲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남산은 많은 시민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있는 도심속의 생활속의 삶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함께 기우고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애정심지인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연네 청결은 물론 시민 4대문동의 하나인 범시민현수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민관공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아산시의 녹지 보고(綠草)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사랑을 들풀고 있는 남산을 아름다운 숲으로 시민과 함께 기우고 보존하여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과 유통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 걷고 다지기의 건강공원, 고장격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스마트 도시나운 패밀리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보건사업 전국1위, 시민건강 지킴이로

아산시 보건소(소장 정갑희)는 지난 5월 6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서 2004년도 노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전국 246개 시·군·구 보건소 중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보건소 108개 개소를 선정하여 인력, 예산, 정보화, 기본환경관리, 진료 및 지원서비스, 보건사업, 이용자 만족도등 20

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 결과이다.

아산시 보건소는 2002년도 전국행정기관 행정서비스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도 보건행정서비스의 전국에서 제일인자로 선정되면서 아산시민들의 확실한 건강 지킴이로 자리매김 했다.

이를 위해 아산시 보건소는 이동보건소 운영, 비만 탈출프로그램 운영, 금연교실운영 및 캠페인전개, 치매노인보호 활동등 시민과 밀접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건강 향상 프로그램들을 발굴 지속적이며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보건소 한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는 사람과 진실의 마음으로 아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보건소 전직원들의 팜방울이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며 “보건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사랑은 계속 될것”이라면서 환하게 웃었다.

연꽃재배, 대체농작물로 WTO극복

신창읍내리 6천여평 연꽃식재, 가공시설도 설치



아산시는 신창면 읍내리에 6천여평의 연꽃재배단지와 연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시설 등을 설치, 대체농작물의 발굴 육성으로 WTO협정에 의한 수입농산물 개방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총사업비 2억원(도비40, 시비40, 읍자80, 자담40)을 투입하여 6천여평의 연꽃단지와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원터, 원두마등을 설치하여 백련 8,000개, 수련300개를 용기재배 기로 하고 식재를 완료했다.

연꽃재배단지에 연꽃이 만개하는 8월이면 8천여 백련과 수련의 우아한 자태는 또하나의 불거리를 연출하면서 아산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들이 찾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농촌에 대체작물로 개발되어 끝은 꽃대로 일은 앞다퉈, 연근과 함께 가공식품으로 다시 태어나 농촌의 소득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농촌경제의 화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사대체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작목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시설 설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도시 - 농촌을 이어가는 사람들

농촌의 부(富)를 일구는 녹색산업의 메카



아산시가 도시민과 농촌을 이어주는 녹색산업의 메카로 인기 절정이다. 정보화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둔포 이산배 정보화 마을과 영인의 내이랑 마을, 송악 스마트마을을 비롯하여 아산의 곳곳에서 도시민의 농촌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산시가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도시민들이 이 찾아오기 쉽고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단위의 문화체험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3일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네이팜비율간의 1:1 협약연행(시·시·군)가 열렸고 28일에는 서울 도시민 40여명이 유기농재배와 천연염색, 수수도가니떡 만들기, 아산관광체험을 할 계획이다.

또한 6월에는 어린이 농촌사랑교실이 운영으로 계획돼 있어 뉴타운생 120명이 3회로 나누어 이산농업 소개 및 농작물 재배과정 관찰, 전통놀이체험, 우리떡 만들기 체험, 아산관광체험을 하게 되고

도시소비자 60명과 농촌지도자 20명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견학과 농사체험, 주요관광지를 돌아보는 농촌지도자 도·농교류행사도 계획돼 있다.

▲ 수수도가니떡 만드는 모습

이와함께 송악면 외암리에서는 광스테이가 활성화 되어 있어 두부만들기, 떡메치기 체험도 가능하여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드는 곳이며 아산배로 유명한 둔포의 정보화 마을에는 배봉지짜기등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는 이기 제일의 체험장이다.

한편 아산시는 도시민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농촌에 대한 추상적인 꿈을 실현해 보면서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신선한 농산물 보급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아산, 국내 최초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 구축

-『친환경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사업』 선정, 향후 60억원 투자-

아산시가 신청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농림부에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사업으로 선정 발표됨에 따라 2007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일정지역의 경쟁력있는 농산물이나 농업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산·학·관이 새로운 농업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아산시는 이미 2004년 6월부터 『아산시 친환경증집제작 7개년 계획』을 수립 후진행 중이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지역자립농정으로 특성화하는데 탄력을 받게 되었다.

■ 농촌에너지 여건에 적합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아산시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특징은 지역내 친환경 경종과 유기축산의 생산물 및 부산물이 전량 활용되는 자원순환형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100% 농가에 활용되는 구조이며,

수도권전철, 천안·광택 등 인근도시의 인구급증과 아울러 웨딩식품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양·아산·도고온천·현충사·외암리 민속마을, 친환경농업단지 등을 활용한 농촌 어머니티 여건에 적합한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상시 토양검정 체계 구축을 통한 유기물 과다투여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혈액환경과 진류농약등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 신뢰 확보하며 광범위한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와함께 다양한 생산 품목 및 지속적 물량 확보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로 아산시의 친환경 농업은 뉴기경종과 죽산이 복합된 국내 최초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자연자원의 환경친화적 이용을 통한 친환경 지역농업으로 특화하여 아산농업의 성장 엔진화하고, 지역 자원 순환형 친환경농업 시스템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견사·인증 시스템의 구축으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면서 친환경 지역농업체계를 구축을 통하여 농업인의 복리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건설에 모든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자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단지별 1,000ha 규모, 총사업비 100억 원이 시원서는 『생태친환경 종합난사 시원사업』을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사업이 마무리 후 2008년부터 추진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클러스터사업”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전체농가 및 면적의 20%로 확대되어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6 2005년 5월 25일 (수요일)

자유시정

이산뉴스



읍면동 소식

정경고, 아름다운 도고만들기



꽃물결이 일렁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후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의 또 하나 즐거움은 들밥먹기!

도고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준비해 온 푸짐한 김치
와 국밥으로 꽃심기에 참가한 면민들은 웃음
과 함께 맛있는 점심으로 입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국 여성 농업인 도고
회원은 “아름다운 풍향기가 멀리 퍼져 관광객
도 늘어나고 도고 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 했
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온천욕을 즐기는 관
광객 및 시민에게 예쁜 꽃길을 걸으며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도고 / 주부영예기자 이 인자〉

송악사랑나눔협의회
사랑과 감사의 카네이션을

정경운 도고, 아름다운 꽃길 도고, 도고를 사랑하는
면민들이 도고 가꾸기에 나섰다. 도고면 기관 단
체 회원들이 여름날을 방불케하는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월) 해바라기 파종 행사에 참여
하여 아름다운 도고 가꾸기에 비자람을 흘렸다.

도고면 와산리에서부터 신례원(예산) 검문소까지
21호 국도변에 꽂잔다. 펜자, 페츄니아와 해바라기
등 봄꽃과 여름꽃을 심어 해마다 피는 가을꽃 코스
모스와 이어지도록 하면서도 도고의 도로변은 연중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송악사랑나눔협의회
(회장 한홍섭)는 관내 농가 어르신 30세대를 찾아
사랑과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사랑과 떡등
을 함께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송악사랑나눔협의회는 대외적인 행사나 색색내기
에 연연하지 않는 학사당 봉사단체로 2004년 1월 9
일 뜻을 모아 창립한 이후로 밀반찬 지원하기, 전기
밥솥 교체해 주기, 방한이불 지원등 실질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원 연중계획을 꼼꼼히 세워 도읍이 필요로 하는
을 선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들의 회비로
총당토록 하고 있으며 1구좌 5,000원을 후원키로 하여
현재 개인 71명과 단체들이 자동이체를 신청, 월
100여만원의 회비가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아진 회비로 연초에 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1년간의 봉사활동에 들어가므로서 일
시적이거나 산발적인 형식적봉사를 벗어나 지속적이
고 반복적인 봉사 활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무의탁노인과 주택유지 곤란
자를 위한 봉절 방축망설치, 가을 방충시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100명을 선정 따뜻한 명절보내기, 도
움활동과 가정비상의약품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와 연계한 김장지원 및 계획사업으로 방한이불지원과
전기밥솥교체, 밀반찬지원 계획들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지원이나 가전제품 지원 봉사에
는 반드시 사후 관리로 고장을 수리하고 사용상 불
편함을 없도록 살펴드리는 재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
색하기도 한다.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고 가고 주민 상호간에 인보정신을
키워나가 삶의 의욕을 키워 나가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기 좋은 내고장 솔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송
악사랑나눔협의회의 참사람이 끝없이 이어지길 기대
해 본다.

〈송악 / 주부영예기자 이상숙〉

선기화재 예방을 위해 꼭 실천하세요

- ▶ 한개의 콘센트에 한개의 전기제품만 사용하기
- ▶ 눈선만에 두선자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빨간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 ▶ 낮은 저선이나 파손된 코센트는 교체 사용하기
- ▶ 정격 퓨즈를 사용하기
 - ▶ 전기다리미와 같은 전열기 사용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전원플러그 빼기
 - ▶ 전기제품은 220V와 110V를 확인하여 사용하기
 - ▶ 집안에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소화기 비치해 두기
 - ▶ 가전제품 전원코드선은 플러그를 잡고 빼기
 - ▶ 누전차단기는 월1회 시험 버튼을 눌러 동작여부를 점검합시다.
 - ▶ 습기 및 물기 있는 곳은 반드시 접지를하거나 누전자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 ▶ 전선이나 배선기구 및 전기기계기구는 정격용량에 맞도록 사용합시다.
 - ▶ 노후·파손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합니다.
 - ▶ 쓰지 않는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뽑아 놓으시다.
 - ▶ 전기난로 주변에는 휘발유나 종이와 같이 쉽게 불에 타는 물질 두지 않기

진료내역통보제도 안내문

□ 나의 진료내역 확인하기

『진료내역통보제도』는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단 인터넷 회원이면 누구나 “진료내역조회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한 내용은 확인하여 요양기관에 전달 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진료내역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가까운 공단자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포상금 지급기준 : 공단이 병(의)원 및 약국으로부터 환수한 금액 기준

- 2,000원 이상 미만인 경우 ▶ 3,000원
- 1만원 이상인 경우 ▶ 환수금의 30%(최고 한도 1백만원)

□ 포상금 지급시기 : 환수금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지급)

□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지금!!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서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농기계 순회수리운영

일자	순회마을	일자	순회마을	일자	순회마을	일자	순회마을
5.30	민주 산성	6.7	온양3 선1	6.14	영지 석정3	6.21	영인 구성3
5.31	선정 신동2	6.9	온양4 배미2	6.16	송악 수곡1	6.23	민주 해밀2
6.2	도고 와산2	6.10	온양6 초사2	6.17	배방 복수7	6.24	선정 선창2
6.3	신창 궁화1	6.13	온양6 풍기2	6.20	음봉 쌍용2	6.27	도고 오암1

고유가 극복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캠페인

인터넷 또는 자필서명으로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약속한 분들중 추첨을 통하여 3,333명에게 경차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

□ 응모기간 : 2005. 4. 1 ~ 2005. 6. 30

□ 참여방법 : 어음철 에너지절약 실천 약속하기(인터넷 신청 또는 자필서명)

□ 약속내용

- 여름철 실내 냉방온도를 26°C~28°C로 유지하겠습니다.

-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겠습니다.

□ off-line으로 자필서명후 우편, 팩스 제출

□ 당첨자 선정 및 경품내역

- 당첨자 선정 : 공개추첨을 통하여 경품 당첨자를 선정

- 경품내역 : 경차(3대), 김치냉장고(30대), 스텐드(300대), 신풍기(3000대)

□ 당첨자 발표 : 2005. 9. 9(금)

- 발표개시 : 공단 홈페이지『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이벤트 코너

□ 기타 및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캠페인 담당자(031-260-4382, windy@kemco.or.kr)



아산뉴스

시정종합

2005년 5월 25일 (수요일) 7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내 · 일정

**민방위 표어·포스터·수필 현상공모**

민방위대창설 제30주년(9.22)을 맞이하여 민방위 표어·포스터·수필을 아래와 같이 현상공모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응모부문 : 표어·포스터·수필(전 부문 동시 응모가능)
- 작품주제
 - 가. 표어·포스터부문 : 일상생활에서 재난에 대처하는 생활민방위의 필요성과 역할강조, 민방위 활동상을 알리 국민에게 친근한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
 - 나. 수필부문 : 민방위활동, 안전관리 신문·재난 대처 경험 등 안전관리 인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
- 규격 또는 분량
 - 가. 표 어 : 16자 내외의 문장
 - 나. 포스터 : 치과와 세도의 제한 없이 2절지 이내의 규격
 - 수 풀 : 200자 원고지 18매 내외 또는 A4용지 4매 (신청조12, 출력간격 160%)
- 접수기간 : 2005. 5. 18. ~ 6. 17(우편은 6. 17일자 소인 유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시 민방위 부서에 제출
- 당선작 발표 및 응모작 반환 : 당선작은 8월말에 발표하며, 응모작품은 9.1~9.20에 신청을 받아 반환
- 우수작품 활용 : 포스터는 창설기념일 전후로 전국에게 시 전보, 표어는 각종 민방위관련 행사 및 공문시에 활용 수필은 '중앙민방위지', 재난관련 신문·잡지등에 게재
- 시상 : 행정자치부장관(우수작) 및 소방방재청장(우수작) 상장 수여, 상금 지급
- 가. 표 어 : 각 부문 - 최우수 1명(상금 50만원), 우수 2명(상금 각 20만원)
10. 기타문의사항 : 시 민방위담당부서(☎ 041-540-2265),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서 이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지원·차상위의료급여

회귀난치성 질환자(백혈병, 헐우병, 킥킨슨병, 만성신부전증, 각종 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증), 12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부양능력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회귀·난·치성질환자(98종), 6월이상 반정신질환자, 12세미만 아동

□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62,918
차상위기준(120%이하)	481,759	802,206	1,089,515	1,363,598	1,563,502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 ⇒ 급여증 발급
- 급여 1종 : 회귀난치성 질환(98종), 급여의 100% 지원 / 급여 2종 : 만성질환자, 12세미만 아동, 급여의 85%지원
- 신정방법
 - 신 청 자 : 회귀난치성, 만성질환자, 12세미만 아동 (본인, 가족, 친지등)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장 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생략가능), 입대착계여서(해당자 한함), 급여거제령 보제공동의서,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아산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

- 기간 : 2005. 4월 1일부터
- 대상 : 주요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가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접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 증명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무허가의 경우 : 건물문 제작신고서,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접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접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이며,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타문의 : 시청자적과(540-2261)

실내수영장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개설·운영

수영장의 주회원인 주부, 경노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도입 개설하게 되었으며 아쿠아로빅 개설로 인하여 수영회원들의 운동호흡을 극대화 및 만족감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입니다.

■ 시 작 : 2005. 6월 ~ (연중)

■ 장 소 : 아산시 실내수영장내

■ 강습일 및 시간 : 월, 수, 목, 금 오전 10:00 ~ 11:00

■ 강 습 력 : 일반 52,000원
(기타 컵면 대상자는 컵면 금액)

- 대 상 : 성인남녀 누구나
- 모집인원 : 20 ~ 30명(회원이 많을 경우 선착순 접수)

2005 상반기 가족통계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5. 6. 10 ~ 6. 30
- 대상축종 : 63종(소, 말, 산양, 돼지, 닭, 사슴, 개, 오리 등)
- 조사자 : 농정과 축산담당 외 1
- 조사방법 : 축산농가 현지 방문 조사
- 조사내용 : 사육가구수, 사육규모, 성별, 난령별 등

"입양 아동" 의료급여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개인급여)
- 신청방법 : 입양아동의 앞부모가 출생서류를 구비하여 의료급여 신청
- 신청 장소 : 시청(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복지담당) 후 증빙 서류 : 입양기관의 장, 아동상담소장이 발급한 입양 사실확인서 1부
 - 금여내용
 - 급여 자격 : 1종 의료급여, 급여비의 100% 지원
 - 급여시기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결정(읍면동사무소·시청(사회복지과)통보 → 의료급여증 반급 교부

아산시, 2005년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 신청접수

- 아산시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동지역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읍·면지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 사업기간 : 2005년 7월 4일부터 2005년 9월 23일까지
- 예산인원 : 88명
- 주요사업 :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국토공원화사업) 등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5세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 등록 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 신청체외자 : 청년실업대책사업 외에는 1세대 2인 이상을 비롯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농지 0.5ha 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자(단, 월 수급액 410천원이하 수급자의 배우자는 참여가능), 연금 수령액이 3개월 평균 410천원초과 수급자 및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가족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아산시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한 축직활동확인서, 휴학증명서(체당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

- 기타문의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540-2351~2)

우회도로 이용 안내

- 남동 ~ 행목간 도로개설에 따른 육교설치 -
- 위치 : 배방면 구령리 일원(신도리코 앞 사거리)
- 기간 : 2005. 4. 12 ~ 12. 31
- 통행속도제한 : 60km/h
- 설치자 : 대전시방국토관리청
- 문의전화 : 아산시청 건설과 (041-540-2484)
- * 남동~행목간 국도대체우회도로노선과 국도 21호선 이 입체교차점에 따라 과선교 교각 설치를 위하여 국도 21호선 ~ 하행선 각각 2차선의 우회도로 개설

영속(양귀비) 및 대마사범 단속

- 기간 : 영속(양귀비) : 2005. 5. 16 ~ 6. 30
- 대 마 : 2005. 6. 7 ~ 6. 30
- 단속지역 : 시 전체
- 대 상 : - 영속(양귀비) 일경작자와 일매자
- 대미 일경작자 및 일매 세용자
- 기타 마약류 관련 사람
- 단 속 반 : 보건소·도청·검찰·경찰 합동단속
- 위반자조치 : 사직당국에 고발
- 불법재배자 신고 안내
- 내전시방감찰청 선안시청 바약우사관설 : 041) 620-4558
- 대전전지방감찰청 천안지청 마약사범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7, 1301
- 충남도청 보건위생과 : 042) 251-2422
- 보건소 의약담당 : 041) 540-2534

8 2005년 5월 25일 (수요일)

문화종합

이산뉴스



5월은 어린이 날이 있고 청소년의 날, 어버이날이 있어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소중함이야 두 번 되질 어 새기지 않아도 전국민이 알고 있고 5월이 되면 평소와는 달리 마음가짐을 한번쯤 추스르고 새로운 다짐을 해 보기도 된다.

아산시는 5월이 되어 시민들의 가정에 대한 소중한 마음가짐과 새롭게 계획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축하행사와 문화예술 공연등을 한달내내 시내 일원에서 다양하게 전개하고 또 계획하고 있다.

5월 5일 신정호에서 만났던 어린이들의 글씨로 콧등과 흥겨운 재잘거림, 5월 6일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한 어버이날 행사에서 흡족한 미소를 얼굴가득 담으셨던 우리들의 어머님, 아버님, 성년이 되었다고 시장 서한문을 받아보며 어깨가 으쓱해져 한껏 상기된 얼굴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청소년들의 마음과 희망을 시가 보듬어 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별주부전공연, 어르신을 위한 효행사 실천의 날, 청소년과 어르신이 하나된 청소년 효 한마당 잔치가 열렸고 19일에는 아산시립합창단이 가정의 달의 꿈과 소망을 선율에 싣고 이산시민과의 만남을 가졌다.

5월, 가정의 달 향연은 6월까지 이어져 아산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와 창단연주회, 아산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가야금연

주단의 함께하는 국악연주회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아산시민들의 문화적 목마름을 해소 시키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춘와비나는 양강 앵보에 군호이를 맞출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충분한 문화혜택 속

일시 : 2005년 5월 25일(수) 오후 7시
장소 : 아산시립극장

에서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아산시립합창단, 실버밴드, 아산오케스트라, 기타 문화예술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도시 나간을 조성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생활관 제3기 수강생 모집안내

- 모집기간 : 2005년 6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
- 접수처 : 아산시울림피기념국민생활관(본관 640-2501, 2410, 수영관 640-2502)
- 등록준비물 : 수강료(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수강신청서
- 교육기간 : 2005년 7월 ~ 9월(스포츠교실은 1개월)

□ 교양·문화 강좌

과목	인원	요일	교육시간	교육내용
글쓰기, 독서지도	30	월	10:00~12:00	어린이 글쓰기, 독서지도
부모자녀 대화법	20	월	10:00~12:00	부모자녀 대화법
생활도자기	25	수, 목	10:00~12:00	직접 긁는 도자기
비즈공예	20	월, 목	10:00~12:00	비즈공예
서예	25	화, 토	14:00~16:00	문자구성 및 작품쓰기
생활영어(초급)	20	월, 수	10:00~12:00	기초영어 이론 및 회화
생활영어(중급)	20	월, 수	14:00~16:00	생활영어 이론 및 회화
일본어	20	화, 금	10:00~12:00	생활일어 이론 및 회화
중국어	20	수, 금	10:00~12:00	중국어 이론 및 회화
서양화	20	월, 토	10:00~12:00	유화기초, 풍경화, 정물화
택간공예	20	화, 금	14:00~16:00	모식함, 다리상, 벽걸이

*수강료 : 글쓰기, 독서지도, 부모자녀 대화법-18,000 원, 나머지 30,000 원

□ 기술·기능 교육

과목	인원	요일	교육시간	교육내용
한식조리기술사	20	월, 토	10:00~12:00	한식조리기술사 자격증 취득
생활요리	30	화, 금	14:00~16:00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재료로 맛과 영양을 즐기기
체육체능	20	수, 금	10:00~12:00	직접 긁는 햄과 쿠키
한복, 양복	20	월, 토	10:00~12:00	한복, 양복, 수선

*수강료 : 10,000 원

□ 건강·스포츠 교실

과목	인원	요일	교육시간	교육내용
댄스	초급반	20	월, 토	12:00~14:00
스포츠	중급반	20	*	14:00~16:00
	저녁반	20	*	18:00~20:00
배드민턴	오후반	60	월~금	10:00~12:00
	민턴	60	*	13:00~15:00
	체육반	-	금	06:00~08:00
	체육반	-	*	20:00~22:00
에어로빅	아침반	30	월~토	10:00~11:00
	로리	30	월~금	20:10~21:10
헬스	저녁반	-	금	06:00~21:00
수영	일반회원	-	월~토	06:00~21:00
	강습회원	-	월~금	09:00~21:00

*수강료 : 수영일반회원 42,000 원, 강습회원 50,000 원 외 나머지 25,000 원 / 교육기간 : 1개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경노자(65세 이상)는 수강료 70% 감면
- 시내권 서울버스 운행, 교육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생활관홈페이지 <http://www/asanlife.or.kr>

5월의 신간 및 추천도서

■ 일반도서

- <우리모두를 위한>비폭력 교과서(아카이유기오부기)
- 우리들의 행복한시간(공지영/푸른숲)
-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강만수/삼성경제연구소)
- 개으름에 대한 천양(버트란드레셀/사회평론)
- 고종황제 역사청문회(교수신문/푸른역사)
- 어느날, 크로마뇽인으로부터(이맹재/민음사)
- 떠도는 몸들(조정권/창비)
- 나때문에(하구치이치요/북스토리)



■ 어린이 도서

- 우리집에는 고물이 우글우글(홍인순/보림출판사)
- 내친구 꼬꼬(김미숙/금성출판사)
- 한해 열두달(레오리오니/미루벌)
- 드라큘라(토니애버트/문학수첩 틀북스)
- 월크바지는 왜 안 끊어질까?(김세운/MEDIA 2.0)
- 멜리 새친구를 만나다(카렌맥콤비/문공사)
- 사과도 일리라(김주현/첫개구리)

